

단국대학교 2022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전 형 명	논술우수자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 명	

☑ 수험생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이며, 고사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중도퇴실할 경우 결시처리)
2. 문제번호와 답안번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됨)
3. 문제별 답안작성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답안 작성 시 인적사항 등 답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0점처리 됩니다.
5. 답안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빨간색이나 파란색 필기구 사용금지)
6. 답안지는 교체가 불가하오니 원고지 교정부호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7. 연습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A4용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8.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비닐백에 넣어 좌석 아래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사 중에 벨소리, 진동, 알람 등의 소리가 울릴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십시오. (30점)

-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십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누군가를 만나 과거보다 더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 감정, 이 감정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존재한다. 여성은 늘 수동적이며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1792년 페미니스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여성 권리 옹호>에서 이제 여성은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직접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대상을 선택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사랑은 단순히 우연에 바쳐지는 것이 아닌 개인의 적극적인 선택 문제가 되었다.

현대 사회의 사랑과 결혼에서 남녀의 성 역할에 대한 기대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은 결혼과 동시에 낭만적 감정을 공유하기보다는 일터의 사냥꾼으로 살아야 하는 운명을 지녔다. 그렇기에 결혼하는 순간 남성은 ‘순결하고 헌신적인 어머니나 누이’의 모습을 여성에게 기대하며 자신에게 헌신해 주기를 요구한다. 이에 반해 여성은 결혼 후에도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감쪽 행사와 사랑스러운 체험을 하게 해 줄 남성을 꿈꾼다. 현대 사회에서 사랑과 결혼은 동상이몽의 현상이 되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점점 사랑의 열정을 소모적인 것이라고 낙인찍으려 한다. 현대 사회는 훨씬 복잡해졌고, 현대인들은 훨씬 바쁘고 피곤해졌다. 그래서 현대에는 이 감정을 좀 더 유용한 것으로 변모시키려 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 감정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찾고 상대를 통해 자아를 확산해 간다. …… 중략 …… 현대인은 점차 낭만적인 환상에서 벗어나 개인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와 자기애가 심해지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 감정에 대한 열망은 식지 않을 것이다. 동상이몽의 결혼 제도라 해도 그것이 시사하는 유대나 소속감은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루한 일상에서 낭만적 환상과 자아의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 메리 울스턴크래프트(1759~1797) : 영국의 작가이자 철학자.

출처 : 방민호 외, 『고등학교 독서』 (출제진 재구성)

[나] 이것의 능동적 성격은 준다는 요소 외에도, 언제나 모든 형태에 공통된 어떤 기본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이러한 요소들은 보호, 책임, 존경, 이해 등이다.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모성애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어머니가 자식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다면, 또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젖을 주지 않거나 목욕을 시키지 않거나 편안하게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보증을 듣더라도 우리는 진실하다고 감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는 어머니를 보면 우리는 강력한 인상을 받을 것이다. 동물이나 꽃에 대한 경우도 다르지 않다.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 중략 ……

보호와 관심에는 책임이라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은 책임이 흔히 의무, 곧 외부로부터 부과된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책임은 그 참된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행동이다. 책임은 다른 인간 존재의 요구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 중략 ……

만일 존경이 없다면, 책임은 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할 것이다. 존경은 두려움이나 외경*은 아니다. 존경은 이 말의 어원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의 독특한 개성을 아는

능력이다. 존경은 다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다.

이와 같은 존경은 착취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란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또는 그녀)와 일체감을 느끼지만 이는 있는 그대로의 그와 일체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용할 대상으로서 나에게 필요한 그와 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중략

어떤 사람을 존경하려면 그를 잘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보호와 책임은 이해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다면 맹목일 것이다. 이해는 관심에 의해 동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공허할 것이다. 이해는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 외경 :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출제진 재구성)

[다] 할아버지의 입관. 할머니와 자식들. 할머니, 할아버지를 쓰다듬으면서 운다.

눈길, 선산으로 향하는 큰아들. 무덤가에서 불을 피운 할머니의 뒷모습. 할머니는 전에 시장에서 사 두었던, 어릴 때 죽은 자식들의 내복을 태운다.

눈물 닦는 할머니. 무덤 위의 눈사람.

할머니 : 아이들을 할아버지가 가서 만나거든, 아이들이 올 거예요. 오거든 옷 한 벌씩 입혀요. 그 전에 나하고 약속했잖우.

할머니는 다시 할아버지의 옷을 태운다.

할머니 : 할아버지, 가져가서 내년 봄 되면 입으셔요. 내년 봄날 따뜻해지면 입으셔요. 이걸 할아버지 러닝셔츠야. 날 따시거든 입어. 내가 없더라도 잘해요. 깨끗이 닦고. 깨끗하게 하고 다녀요, 할아버지. 내가 없더라도 할아버지 보고 싶더라도 참아야 돼. 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더라도 참는 거야.

눈물 닦는 할머니. 무덤 위의 눈사람.

할머니 : 할아버지요, 나는 집으로 가요. 나는 집으로 가니, 할아버지는 잘 계세요. 좀더라도 참고.

할머니는 걷다가 무덤을 다시 뒤돌아보고 흐느낀다. 흐느끼면서 겨우 발걸음을 옮기던 할머니, 무덤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흐느낀다.

할머니 : 아이고, 너무 불쌍하다. 할아버지가, 아이고 세상 불쌍해. 할아버지 불쌍해 죽겠네. 할아버지 생각나니까는, 할아버지 생각을 누가 하나, 나밖에는 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이고. (페이드아웃*)

* 페이드아웃 : 영상에서 화면을 점점 흐리게 하여 결국에는 소거하는 연출 기법.

출처 : 류수열 외, 『고등학교 문학』

[문제 2] [가]를 고려하여 [나]를 설명하고, [가]와 [나]를 활용하여 [다]의 현상들을 소비의 관점에서 모두 설명하십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인간에게 양식(良識)은 가장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사람들 모두 스스로가 양식을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다른 모든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마저도 대체로 자신들이 이미 갖추고 있는 양식보다 더 많은 양식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양식 혹은 이성이라고 불리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힘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 태생적으로 동등하다고 입증된 것처럼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들이 보여주는 의견의 다양성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이성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우리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며 동일한 대상에 집중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영혼은 가장 훌륭한 미덕만큼이나 가장 위험한 악덕도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언제나 곧게 나 있는 길을 따라 걷는다면, 달려가지만 그 길을 벗어난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다.

나는 나의 그 어떤 면도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다.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민첩하게 판단하거나, 명확하고 독특하게 상상하거나, 완벽하고 신속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랐다. 나는 이러한 것들 외에 정신의 완벽함에 기여하는 특성들을 알지 못한다. 이성 또는 판단력만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짐승과 구별해 주는 것이므로, 이성은 개개인들에게서 완벽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동일한 종의 탁월함과 열등함은 오직 우연에 의해 평가되며, 개별적인 형태나 자질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따르고 싶다.

출처 : 데카르트, 『방법서설』 (출제진 재구성)

[나] 자본주의는 경제 문제를 시장을 통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시장 경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하고 경쟁에 기초하여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체제이다.

시장에서 개인은 자신의 욕망에 비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때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한 후 선택의 대안들을 분석하고 각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파악해야 한다. 편익은 어떤 선택을 통해 얻어지는 만족이나 이익을 말하는데,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출처 : 구정화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우리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선택의 과정에서 효율성*만을 추구할 경우 공공의 이익이나 규범 준수와 같은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중략.....

합리적 선택은 소비자나 기업 등 각 경제 활동 주체의 차원에서 보면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는 기여하지만,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 경제 활동의 주체는 선택의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과 공익,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여 조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갖추 필요가 있다.

* 효율성 : 최소 비용으로 최대 만족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의 원칙

출처 : 이진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다] M세대는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로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이고, Z세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일컫는다.

이들은 미래 비즈니스와 밀접하게 연관 있는 세대로 새로운 세대의 소비 패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지난달 MZ세대 2,233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 성향’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51.2%)이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을 추구하는 ‘가성비 소비’*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인간이나 동물·환경에 해를 끼치는 제품은 피하고, 환경과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거나 공정 무역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을 구매하며, 제3세계 노동자들을 인식하자는 소비 운동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에서 동물 실험 반대 바람이 불고 있다. 동물 실험이 동물의 고통과 죽음을 상쇄할 만큼 유용하지 않고, 또 유용하다 할지라도 이를 대체할 방법이 있다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미 검증된 원료를 이용하거나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실험법을 사용함으로써 ‘크루엘티 프리(Cruelty Free)**’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제는 에너지 소비가 많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1~5등급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을 부착하도록 하고, 최저 효율 기준 미달 제품은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은 5등급보다 약 30~40% 에너지가 절감된다.

공정 무역은 개발 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좀 더 유리한 무역 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형태를 말한다. 업사이클링(Upcycling)은 기존에 버려지던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더해(Upgrade) 전혀 다른 제품으로 다시 생산하는 것(Recycling)을 말한다.

* 가성비 소비 : 지불한 가격 대비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소비 행위

** 크루엘티 프리 제품 : 비동물 실험 인증을 받은 제품

출처 : 『내외경제TV』, 2021. 6. 11. (출제진 재구성)

정창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문제 3] [가]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연관지어 설명하고, 이 설명을 바탕으로 [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오늘날 사회 불평등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 불평등이란 부, 권력, 지위와 같은 사회적 희소가치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개인, 집단 및 지역이 서열화되어 있는 현상을 말한다. 불평등은 사회적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해지면 구성원 간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출처 : 정창우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는 발전을 가리킨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경제 성장, 환경 보전, 사회 안정과 통합 등의 여러 분야를 조화롭게 추구할 때 이룰 수 있다. 초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환경 보전과 경제 개발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최근에는 사회 공동체의 유지와 경제 발전 역시 조화롭게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 이진석 외, 『고등학교 통합사회』

[나]



<실질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 추이, 단위 : %>

출처 : 한국은행, 2021.



<한국 잠재 성장률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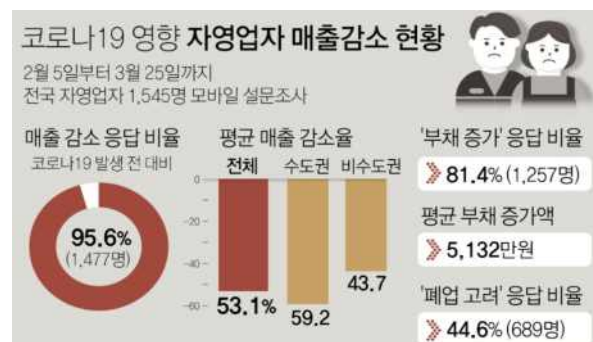
* 잠재 성장률 : 안정적인 물가 수준을 유지하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의 증가율을 의미함.

출처 : OECD, 2020.



<비정규직 근로 비중 현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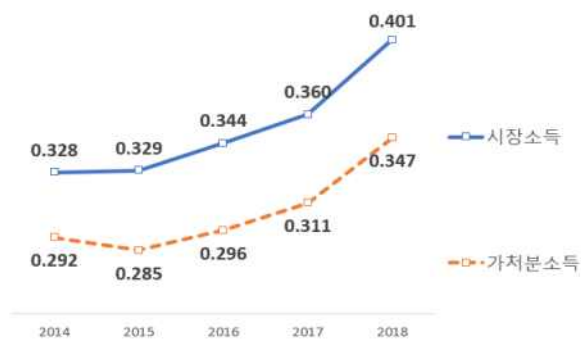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19.



<코로나19 영향 자영업자 매출 감소 현황>

출처 : 연합뉴스,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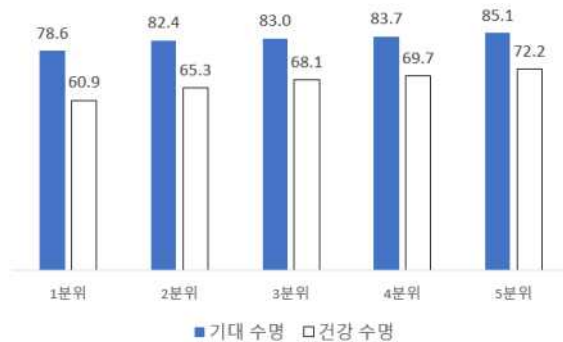
[다]



<국내 지니 계수 추이>

* 지니 계수 :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로 0에서 1사이의 수치로 표시되는데, 소득 분배가 완전 평등한 경우가 0, 완전 불평등한 경우가 1임.

출처 : 통계청, 2018.



<소득분위별 기대 수명, 건강 수명, 단위 : 세>

* 기대 수명 : 사람들이 몇 년까지 살 수 있을지 추정하는 기대치를 의미함.

** 건강 수명 : 특정 나이대의 사람이 장애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햇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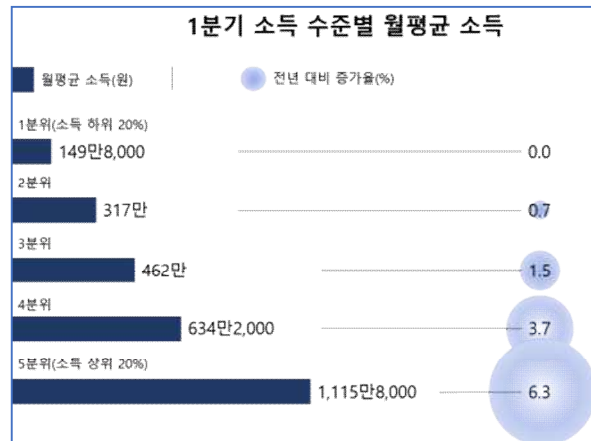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2019.



<계층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추이, 단위 : %>

* 위 수치는 비소의 계층의 정보화 수준을 100이라 했을 때, 소외(취약) 계층의 정보화 수준임.

출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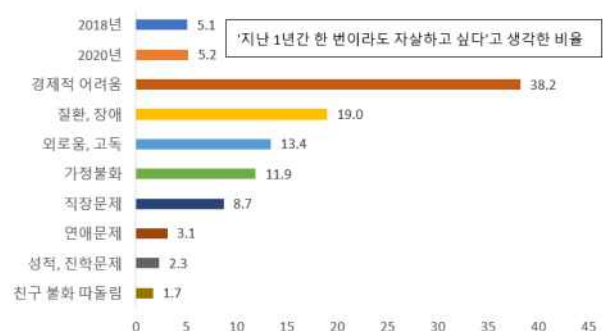
<2020년 1분기 소득 수준별 월평균 소득>

출처 : 통계청, 2020.

가구소득별 사교육 현황		
가구소득별	사교육비(월평균, 원)	사교육 이용률(%)
200만 원 미만	9만9,000	39.9
200만~300만 원 미만	15만2,000	50.5
300만~400만 원 미만	19만6,000	60.3
400만~500만 원 미만	25만7,000	67.8
500만~600만 원 미만	31만	71.9
600만~700만 원 미만	35만7,000	74.2
700만~800만 원 미만	42만5,000	79.9
800만 원 이상	50만4,000	80.1

<가구소득별 사교육 현황>

출처 : 교육부, 2020.



<자살 충동 여부 및 이유, 단위 : %>

출처 : 통계청, 2020.

[라] 문제는 2030세대 1인 가구가 경제적 빈곤으로 고시원, 원룸과 같은 취약한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면서 심리적 고립뿐 아니라 물질적 고립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양모(30) 씨는 올해 세 번째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년 전부터는 가족과 떨어져 월 25만원짜리 고시원 생활을 하고 있다. 양씨는 “2평도 안 되는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공간에서 벽만 보며 살다 보니 ‘나는 세상에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란 생각이 들 때가 많다.”며 “최근에는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출처 : 『중앙일보』, 2021. 3. 27.

“(이사 결정을) 빨리 좀 해주세요”라는 마지막 독촉. 기댈 가족도, 돌아갈 고향도 없지만 할머니는 그저 “네”라고 했다. “저기서 혈린다 해서 여기로 왔는데 또 혈린대요.” 경기 광명에서 50년 넘게 살아온 김선이(가명·79) 할머니는 지난 전세살이 두 번을 재개발 철거로 인해 집을 빼야 했고, 이번에도 그렇다. 세 번째다. 10여 년 전, 농사를 지어 번 돈으로 샀던 집을 사기로 잃은 후 전세살이를 시작했고, 이제 가난한 그는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살 자격이 없다고 한다.

출처 : 『한국일보』, 2021. 6. 9.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하는 이 씨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한다. 이 씨는 “점심과 저녁을 모두 밖에서 사먹어야 하는 날은 한 끼는 굶고 나머지만 ‘밥버거(밥으로 만든 버거)’나 토스트 같은 걸로 간단히 때운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우리 사회에 묻혀 있던 결식 청년 등 청년 빈곤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취업난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르바이트마저 힘들어지자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다. 교육비, 주거비 등 절약할 수 있는 건 다 줄이고 ‘이제 줄일 건 식비뿐’이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청년들이다.

출처 : 『동아일보』, 2021. 4. 19.

지난달 3일 만난 최길녀(여·가명·67) 씨는 3년 전부터 손가락 마디가 아프기 시작해 빨래나 설거지를 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상태다. 하지만 병원에 가지 않아 병명조차 알지 못한다. 최 씨는 갑상선암 후유증을 앓고 있는 남편 강명석(가명·69) 씨와 함께 사고로 숨진 아들이 남긴 17, 18세 손녀를 돌보는 조손가정 보호자다. 아파트 경비원과 요양 보호사로 생계를 잇던 두 부부에게 지난해는 실직과 경제적 빈곤, 질병이 한꺼번에 닥친 힘든 한 해였다. 코로나 시대 노년층 격차는 극명하게 갈린다. 바늘구멍보다 좁은 노인 일자리, 소득 감소에 따른 스트레스와 건강 격차는 육체적·정신적 문제와 연결된다.

출처 : 『서울신문』, 2021. 3. 4.